

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Colomb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2023년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 수출 시, 영양소 함량 기준에 따라 식품 앞면 영양 표시 의무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앞면 영양 표시와 관련한 규정 (Resolución 2492 de 2022)」이 시행됨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2021년 결의안 810호의 2, 3, 16, 25, 32, 37, 40조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에 함유된 설탕, 나트륨, 감미료,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적용 대상 : 사전 포장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콜롬비아 내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모두 포함함
단, 일부 품목은 영양 표시 또는 앞면 경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 영양 표시 또는 앞면 경고 표시가 제외되는 일부 품목

(*) 최소 가공식품 : 외부 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변경된 자연식품

영양 표시 제외 대상	앞면 경고 표시 제외 대상
0~6개월/6~12개월 사이의 영아용 조제분유, 특수 분유, 특수 의료용 식품(APMES), 차 및 커피류, 대량 식품,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부원료, 생식, 최소 가공식품*, 전통식품과 같은 수제 음식 등 (단, 단일 성분으로 추가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영양성분 표기 및 앞면 영양 표시 의무 제외)	요오드 첨가 및 불소화염 대체물, 소금/나트륨·지방·설탕 등이 첨가되지 않은 포장 식품
천연 재료로 포장된 식품, 소금/나트륨·지방·설탕 등이 첨가되지 않은 향신료 또는 야채 조미료(예 : 무설탕 케첩 등)	

2. 표시 기준

앞면 영양 표시는 영양소 함량이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치 이상의 경우 표시하여야 함

영양소	고체(100g, 반고체 포함)	액체(100mL)
나트륨	≥1mg/kcal 및/또는 ≥300mg/100g (*) 소금/나트륨이 첨가된 포장 생고기의 한도는 300mg/100g	≥ 1mg/kcal 또는 에너지 섭취가 없는 무알코올 음료: k 100ml당 나트륨 40mg
설탕	≥ 유리당*에서 총 에너지의 10%	≥ 유리당에서 총 에너지의 10%
포화지방	≥포화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0%	≥포화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0%
트랜스지방	≥트랜스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	≥트랜스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
감미료	모든 양의 감미료	모든 양의 감미료

(*) 유리당: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않고 덩그러니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당을 이르는 말로,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당도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용어

3. 표시 양식

- 팔각형 모양에 텍스트만 삽입된 검은색 마크로 변동됨
- 팔각형 내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성분이 많을 경우 2~5개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모든 문자는 흰색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폰트는 ARIAL BOLO를 적용해야 함
- 콜롬비아 보건부를 지칭하는 'MINSALUD'도 흰색으로 표기 되어야 함

[전면 표시 의무 경고 라벨 예시]



4. 추진 일정

-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부터**

- 전환 기간 : 2024년 6월 14일까지

-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라벨 전환 기간 5년이 부여됨

(다만, 2023년 6월 16일부터 용기 앞면에 접착제로 부착할 수 없거나, 재활용 시 라벨이 유지될 수 없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뚜껑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 5. **위반시 조치사항** : 2024년 6월 15일부터 경고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 식품은 제조일과 관계없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함

김, 라면, 커피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첨가당, 소금, 지방 등 함량 사전 확인해야
 콜롬비아는 최근 정크푸드법 제정 등을 통해 설탕,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규칙을 발효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콜롬비아로 김, 라면, 인스턴트 커피, 고추장,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함.** 한국 가공식품 수출 기업도 2023년 6월 14일부터 식품 앞면에 영양 표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라벨 부착을 위한 영양소별 함량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라벨 오류 또는 미부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